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을 여십시오.

10장, 11장, 12장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설립한 후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일단 바울이 떠나자 이리들이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흑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의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해 갈 때에, 우리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바울이 없을 때에 말하던 것들을 바울을 직접 대면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종류의 대결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갈 때에 거기에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을 타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루면서 그의 사도직과 그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으로서 10장을 시작합니다.

1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내가 거기에 있을 때) **검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여기 있을 때는 매우 유순하고 온유하지만, 그가 떠나 편지할 때는 너희를 극구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갖 능력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 있을 때는 매우 온유하였고, 그러나 진짜 본성은 그의 편지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즉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그들을 다스리려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섬기고 도우려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써야했을 때는, 그는 매우 강경하고도, 직설적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떤 위대한 과장된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청하기를, 내가 그곳에 갈 때 이러한 문제들을 엄하고 가혹하게 다루기를 원치 않으며, 너희들 가운데 담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13장 6-11절)에 바울이 한 특정한 섬의 총독에게 전하고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복음에 열려있었던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뒤엎으려고 애쓰는 바에수 또는 엘루마(번역하면 박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반박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 사단의 종아, 너는 얼마 동안 소경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결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하면 그들을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비난 중의 하나는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한 것같이 비난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아주 육신적인 편지이다. 그가 쓴 문체를 보라고 했습니다.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쓴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육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싸움은 영의 세계에 있고 그곳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경우 육적인 일에 빠져서 육적으로 투쟁합니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말려들어 패배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울 때 사단은 우리보다 더 이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영과 영의 세계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사단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육적인 영역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혜로우며 교활합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서 그가 우리를 육적인 것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우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 있어 행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싸움을 영의 세계 안에 국한한다면, 당신은 분명한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승리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항하는 이러한 어둠의 권세를 패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그의 승리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그가 언급한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다른 것들, 즉 우리가 가진 이런 영적인 방어들을 나열한 후에 그는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천사들이 신비로우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아주 위험한 폭풍을 만난 배에 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선장을 보고 말하기를, 선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장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친 듯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단 말입니까? 라며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실패할 때 기도하라”는 표어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만일 먼저 기도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기까지 왜 기다립니까?

누가복음(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모든 정신적인 고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며,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갈 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를 굽으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기도하려나? 왜 저러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하며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이 일을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에 요새를 두고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당신의 친구들의 삶에 요새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무기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들인 기도와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이론들을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겨 세우려고 하는 많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대학들은 대체로 무신론적이고 완전히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이를 대학으로 보낸 후 기도로 그를 감싸고 또 계속 기도로 그를 덮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육에 영향을 받아 그곳에서 살아남을 승산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불결케 하려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판이나 잡지 등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부터 사실 오염되지 아니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당신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데까지는 단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1장 13-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행하면 그것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능력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영역 안에서도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나는 일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나는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서 자료에 몇 가지 묘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서 자료에 의하면 그는 매우 키가 작았고 모난 얼굴형에 매부리 코와 눈에 안질이 있어서 항상 무엇인가가 그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력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그는 사팔뜨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고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노라.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나도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조롱하게 하라.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은사는 실제로 너희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라고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파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다.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도다. 나는 가서 너희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거나, 혹은 내가 담대함으로 가서 너희를 대항하여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도 있도다. 그렇지만 바울은 세우는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저들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그들이 한 일들의 몇 가지를 언급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너희로부터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여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또한 다른 모든 면으로 강탈하고 있도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들은 바울이 그의 편지로 저들을 놀라게 하려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0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약하고, 그는 단지 키가 작은 유대인일 뿐이며, 그의 언변도 하찮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시작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 인줄 알라.**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편지로 할 때와 같은 힘과 능력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 그들은 그것을 볼 것이라!

**1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나의 초기 사역 시절에 나는 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항상 서로를 지켜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때 그 사람을 미사여구로 그 사람을 한껏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부풀려서 소개를 받은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를 소개한 그 사람을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축적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쉽게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골라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도 당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준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비교하기를 원하고 또 정직하게 비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위한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의보다 못한 것은 아무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도 모두 지키려고 그들의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모든 종교의식을 지켰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헌금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큰 자랑거리였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런 충격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6-18; 15:26; 16:7-11). 그 분이 오시면 그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천국으로 받아들일 의이며, 의의 표준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낫지 못한 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온갖 노력을 다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그 의에 이르지 못하며, 그 의에 이르려고 당신의 전 생애를 바친다 할지라도 당신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록 책에 우리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비교하여 자신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빈민가에 가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 과장된 소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하는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거나 측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나 일어났던 것들을 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풀려서 사실을 과장하여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한 것 이상이나 정도를 넘어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지를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도를 넘어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은 나를 아카이아까지, 거기 고린도까지 가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역과 지금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마게도냐에 전했고, 그리고는 그리스에 그리고 아카이아에까지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카이아까지 갔고 비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때까지 로마나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더 먼 지역에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가 갔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전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이루어 놓은 사역 위에 지으려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도를 넘어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로 들어가 사람들을 의존하여 살고 있었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린도까지 갔노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는 미지의 지역으로 갈 준비가 되었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시작한 곳에 들어가 떼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하려는 것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그룹들이 다른 믿는 자들이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종교 단체로 끌어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전도에 약합니다. 전도운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감정적으로 매혹하려고 하지 진정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역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수고 위에 세우기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길거리나 해변 등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죄인들을 붙들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남들이 이룩해 놓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갈라디아서 6:14절)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23-24절)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인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했으며 등의 나의 자랑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며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의 사역과 그 자신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요 관심이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께서 받으실만한 것인가? 내가 내 자신과 내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주께 대한 나의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는 사람에게 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대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생각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3절)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것이 너의 재질이나, 능력이나, 네가 소유한 어떤 것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칭찬하며

높이는 대신에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울은 계속 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11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엄하게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할 것이며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들어온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